

## 2016 라틴아메리카를 발간하며

2015년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가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해였고, 그 혼란은 2016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을 중심으로 한 좌파 경제 대국은 정권의 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치적, 경제적 시련을 겪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의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이들 국가가 이제는 반대로 원자재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뚜렷한 경제 하락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솟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 그리고 오랫동안 끓아온 정치적 부패의 발각이 총체적 난국을 만들어내고 있다.

브라질은 국영석유회사 뇌물 비리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호세프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란까지 불거졌다. 경제 또한 2015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추락하였고,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뚜렷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14년 미국 계 벌처펀드의 채무상환 제소에 기술적 디폴트를 선언한 이래, 2015년 1.2%의 낮은 GDP 성장률로 여전히 경제위기에 허덕이고 있으며, 특히 환율과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2015년 대선에서는 12년간 정권을 유지하던 좌파 정부가 패배하고 우파 성향의 마크리 대통령이 집권하였다. 베네수엘라는 2014년 말부터 시작한 국제유가의 급락이 석유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베네수엘라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GDP 성장

를, 재정수지, 소비자물가상승률, 국가신용등급 등의 경제지표가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의 파탄으로 인해 2015년 말 총선에서 집권 정당은 야당에 참패하였고, 마두로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이 책은 최근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좌파 국가의 위기에 주목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전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물론 라틴아메리카의 엄청난 복잡성과 가변성 때문에 완벽한 분석과 전망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한 연구와 시도는 라틴아메리카를 더욱 잘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주요 좌파 경제 대국의 위기에 관한 분석과 함께, 작년 9월 ‘쿠바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 연구소가 개최한 시사토론회의 전문(全文)을 부록으로 수록하여 2014년 미국과 50여 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한 쿠바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였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기현서 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 소장, 김기현 선문대 교수, 송기도 전북대 교수, 이상현 전북대 교수에게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연구와 교육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성심을 다해 이 책에 실린 글을 집필 또는 번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6년 5월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장

김 춘 진